

□ 한중, 건강코드 상호 인증체제 구축 협의

지난 6일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은 한국과 영원한 이웃국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밝혔다.

얼마 전 열린 중·한 외교부 장관 회담 성과를 발표하면서 자오 대변인은 “양국은 상대국 국민을 자국의 백신 접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지지하고, 건강코드 상호 인증체제 구축을 협의했다” 고 말했다.

이어 “내년은 중·한 수교 30주년이다. 중국에는 ‘삼십이립(三十而立, 서른 살이 되어 자립한다는 뜻)’이라는 말이 있다” 고 소개하고, “중국은 한국과 함께 약 30년에 걸친 양자 관계의 양호한 발전을 토대로 양국 간 상호 신뢰와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국제 및 역내 사안에서 양국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 중·한 관계를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길 바란다” 고 밝혔다.(人民网, 2021.4.8.)

□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의사항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식사이트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답>에서 현 단계에서 중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는 18세 이상, 60세 이상 노인들도 접종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분명하게 언급했다. 60세 이상 노인들의 백신 접종 효과는 어떠한지 또 주의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접종을 권유하지만 기저질환자에 한해서는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60세 이상의 경우는 코로나19 감염 후 중증이나 사망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I/II기 임상 연구 데이터에서, 60세 이상의 백신 접종은 안전하고, 18~59세와 비교해 접종 후 중화항체 역가 수치가 좀 낮긴 하지만 중화항체 양전율이 유사해 60세 이상의 백신 접종도 분명 보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접종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면역계획 수석전문가 왕화칭(王華慶)은 노인의 기저질환 비율이 높은 편이고 코로나19 예방에서 보호가 필요한 중점 집단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저질환 노인의 경우 만약 기저질환이 정기적 치료로 잘 제어가 되고 있다면 백신 접종이 가능하며, 만약 기저질환이 급성 발작기라면 의사와의 상담으로 접종 연기를 고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술 지침(제1판)>에 근거해 백신 접종을 금지하는 경우는 ▲백신의 활성화 성분, 모든 불활성화 성분, 생산공정 사용 물질 알레르기 반응자 혹은 같은 유형 백신 접종 알레르기 반응자 ▲백신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경우(급성 알레르기 반응, 혈관신경성 부종, 호흡곤란 등) ▲급성 간질과 기타 심각한 신경계 질환자(횡단성 척수염, 길랑-바레 증후군, 탈수초성 질환 등) ▲열이 나거나 급성 질환 혹은 만성 질환 급성 발작기 혹은 위중한 만성 발작환자 ▲임부로 지정했다.(人民网, 2021.4.8.)